

<타이틀>

S#1 캠퍼스 운동장 스탠드 그늘 아래, 낮

여름풍경, 주변에 떠들고 웃는 소리.

시현, 다인, 하정 조롭이 스탠드 그늘에 앉아 있다. 다들 멍하니 조용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있는데 문득 시현이 입을 떴다.

시현       나 수진언니 좋아하나봐

하정       아~ 그 조과제 같이 한 언니? (그럴줄 알았다는 듯)

다인       앵? 언제부터? (시현 연애사에 자기가 들뜬)

시현       ..작년..?

다인       나 왜 몰랐지??

하정       참고로 나도 여자 좋아해~

시현       ?? 뭐야ㅋㅋ (다인에게, 은근 기대에 찬 눈빛)

하정도 옆에서 다인을 쳐다본다.

다인       (두 사람의 시선에 동공지진) 난..남자 좋아하는 거 같은데...

하정, 아쉽다는 듯 입을 다시며 시선을 거둔다.

시현       아..~ 나도! (웃으며 경쾌하게)

다인       근데 너 알고 있었어? (하정에게)

하정       아니?ㅋㅋㅋ 근데.. 그 언니 남친 있지 않나..?

다인       (눈치)

시현       아~ 그거? 헤어졌어! (해맑게)

다인       오~~ 그럼 고백하는 거야?

시현 (짱그리며) 아니?  
다인 왜???  
시현 (이해할 수 없는 표정) 왜해? 다신 못 볼지도 모르는데?..  
다인 너 좋아하게 될 수도 있잖아!  
하정 맞아  
시현 (터무니없다는 표정) 로또 당첨되는게 더 가능성 있겠다..  
하정 왜~!? 남친도 없겠다, 이럴 때 꼬셔봐!  
다인 맞아!

투닥거리는 세 명 룡샷

S#2 며칠 후, 학교 건물 모퉁이, 낮

시현의 시점에서 수진을 보는. 수진 바스트샷  
건물 코너에서 세명 얼굴만 내놓고 수진 몰래 보고 있다.  
누군가(남)와 얘기하는 수진. 남자는 보이지 않고 대화도 들리지 않는다.

하정 말 졸라 많네...  
시현 내 말이..  
다인 옆에 남친 아니지?  
시현 아니야.  
하정 그럼 쌤남? (장난치는)

시현       아니!?! 강 동기야..

하정       왜~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잖아~ (놀리듯이, 건물 벽에서 떨어진다.)

시현       (짜증나는 표정)

하정       근데 너가 훨 낫다. (뒤에서)

시현       그치.

다인       너 진짜 고백 안할거야? (B 와 같이 벽에서 떨어지며)

시현       몰라..

다인       ..설마 저 분 호모포비아야?

시현       야! 그런 사람 아니거든??? (뒤돌아 B, C 에 합류)

하정,다인       (어깨 으쓱)

시현       언니 무지개 스티커도 있고! 어? 내가 준거지만.. (작게 말을 덧붙인다)  
... 아가씨도 봤어!~!

다인       (한숨, 턱으로 까딱 수진을 가리키며) 근데 저러다가 사귀면 어떡해..?

하정       셋이서 또 같이 밥먹는거 아니야? 남친이랑? ㅋㅋㅋㅋ

다인       (너무하다며 말리는 투) 약ㅋㅋㅋㅋ..

시현       닥쳐라~ (뒤돌아 수진을 본다.)

뒤돌아보는 시현 시점, 자리를 뜨는 수진 본다.  
위기가감이 들면서도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현.

S#3 강의실 앞 복도, 낮

누군가를 기다리는 다인. 하정이 다가오자 인사한다.

다인 하이~

하정 (바스트샷, 가까워지는데 걸음이 이상함) 안녕~

시현 (뒤에서 소리난다) 안녕

B 바짓가랑이 붙들고 다리에 매달려 질질 끌려온다.

다인 .. 뭐해?

하정 (별거 아니라는 듯) 플러팅 좀 가르쳐 달래

다인 오 진짜?!? 레즈킹이 비법 좀 전수해줘~!  
(신남, 걸음 옮긴다)

하정 (같이 걸어가며, 질질 끌려가는 A) 비법?

잠시 생각하더니 B 는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책 손바닥으로 가리킨다.

다인 (어이없어하며 A 에게 고개 저으며) 포기해..

시현 뭐야 진짜 없어?

하정 응 (두 명 걸음 멈춘다.)

시현 (일어나며) ..진작 말하지.. (투덜거리며 옷 던다)

다인 왜 없어? (당연히 있을거라 생각한)

하정 아니 내가 수작 걸 일이 없었어~!  
고백받거나 소개받아서 바로 썸이었는데 뭐.. (변명하듯이)

시현 너 레즈킹 박탈이야.. (먼저 걸음을 옮긴다)

하정 아 왜~~!! (시현 따라가며 세명 같이 걷는다.)  
근데 그 언니 이성애자야?

시현 몰라... 그러면 안되는데..

다인 물어보면 안되나ㅋㅋ.. (자신이 말하면서 어이없음)

시현 (한숨)

하정 (쳐진 시현을 보고) 어휴 시벌 우선 해보자~! 플러팅 고자끼리~  
연애는 자신감이랬어! (시현 어깨 토닥)

시현 이상한 건 시키지마.

화면 밖으로 나가는 세 명.

S#4 오전, 카페

걸어가는 시현의 뒷모습 (소리 안남)

V.O (시현, 수진 나오는 화면보며 중계하듯이)

하정 야야야 나 뭐 생각났어. 선배 향수 좋아하셔?

시현 기다리는 수진의 모습

시현 어, 자주 뿌려 (왜 묻냐는 투)

하정 그러면 그 선배가 좋아하는 향수를 너가 뿌려!

시현 저멀리 수진을 보고 가방에서 공병을 꺼내 향수 뿌린다.

하정 이케 샅! 하고 향이 퍼지게!

시현 허...? (뭘말이냐는 목소리)

하정 아님 뭐 바람 부는데 서있든가

수진과 만난 시현

아무튼 언니가 “향 좋다 (수진 목소리)” 고 할거잖아?  
그렇게 호감도를 높이고! 선배가 향수 뿌렸을 땐 너가 냄새 좋다 하면서  
이케 손목을 잡아가지고!

손목 잡고나서 슬로우모션,

하정 말아!

시현 ?말으라고??

하정 어!

시현 이걸 왜 말아?

하정 그럼 목덜미에 뿌린 거 말든가

수진이 향수를 뿌린 목덜미

시현 아오.. (갈등하는, 옆에서 하정이 부추긴다)

하정 아 빨리

결국 손목 냄새를 맡는. CU  
하지만 수진 아무 반응 없다.  
그냥 서로 향수 냄새 맡으며 이야기 나누는 꼴이 돼버림.

시현 ..끝이야?

다인 (어디선가 나와서, 마음에 안든다는듯) 너무 자연스러운거 아니야?  
은근하게~ 터치도 좀 하고~

시현 뭘 터치야!~! (식겁)

하정 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친구에서 벗어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수진의 표정에 복잡한 시현, 기분 좋게 향수 얘기를 하는 수진을 보고 있다.

S#5 도서관, 낮

(썸 4 와 동일 방법)

V.O

다인 아니면 너 선배 따라서 계절학기 듣잖아, 맨날 같이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도 좀 하고~ 먹을거도 좀 주고! 어깨에도 좀 기대고~  
로맨스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활용 좀 해봐~

다인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시현의 모습,

청춘 로맨스 영화에 나올 거 같은 장면 - 바람 불고 커튼이 날린다.

책상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수진과 시현. 수진은 머리를 귀 뒤로 넘긴다.

넋을 잃고 보다가 다인의 말에 정신 차리고 수진이 좋아하는 간식을 기억하고 그에게 건넨다.

좋아하며 고맙다고 하는 수진, 곧 수진의 어깨에 기대는 시현, 긴장해서 수진의 낮을 살피랴 머리를

기댈 어깨를 살피랴 정신 없다. 하지만 꽤나 긴장하고 행동한 시현에 비해 수진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계속 공부하면서 자신의 어깨에 기대는 시현의 머리를 톡톡 쓰다듬는다.

겉으론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친한 친구 사이로 보인다.

5-2

이런 수진의 반응에 왠지 비장하게 수진의 공책에 뭔갈 적는 시현. 수진 CU.

하지만 '언니'까지만 적고는 펜을 움직이지 못한다. 시현을 보는 수진, 그 시선에 시현은 멈칫한다.

이내 펜으로 글자를 지워버리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의자에 기댄다.  
싱겁다는 듯이 웃는 수진, 다시 공부한다. 착잡하게 의자에 기댄 시현 샷, 그의 뒤로 여백이 있는  
통샷.

S#6 시현 자취방, 오후

너무 덥고 지쳐서 에어컨 켜는 손. 세 명 바닥에 널부러져 있다.

하정 아 개더워

시현 ...

다인 플러팅 너무 어렵다...

시현 아니 그래도 카톡도 맨날 해... 좋아하는 거 다 기억해... 스킨십도 해...  
보통 이러면 썸타기 시작하지 않나..?

하정 이성애 지옥이라 그래~ 강 고백해~

다인 너무 친구 같아서 그런가?

시현 아... 그냥 내가 언니 스타일이 아닌가?

잠깐 정적

시현 존나 조용하네?

다인 에이 아니지~!

하정 어우~ 시현이 완전 수진언니 취향이지 ~

시현 (짜려보다가 늘어진다) 아... 그냥 편하게 남자 좋아할걸..



다인 (위로하며) 치킨 먹을래?

시현 응.....

다인 (자리에서 일어난다)

하정 (바닥에서 꼼지락거리며 시현 옆으로 오더니 손 잡고 토닥거린다.)  
에휴.. 그래도 내일 같이 술 마신다며. 마지막으로 집적대봐...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시현 손 들어서 보더니)  
아.. 너 손은 진짜 레즈킹인데... (안타깝다는듯 시현의 손을 본다.)  
근데 손톱은 좀 잘라야겠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치킨 뭐 먹을래?

시현 (병 찌서 자기 손 본다.)

## S#7 변화가 골목, 밤

시현이 부축해서 가는 수진. 걸긴 걷는데 휘청거리는 시현. 결국 벤치에 앉는 둘.

수진 시현아 괜찮아? 약 사다줄까? 물 마실래?

시현 (고개 젓는)

수진 (시현의 상태 보고 안되겠다고 판단)  
나 바로 옆에 편의점 좀 갔다올게

시현 (고개 젓다가 수진의 손목 잡는다) 아~~ 죄송해여....

수진 그림 좀 걸어봐! ㅋㅋㅋ

시현 언니 (손목 놓지 않고 여전히 잡고 있는)

수진 응?

시현 (한참 잡고 있다가 천천히 얼굴 가까이 들이밀더니 빤히 쳐다보는)  
좋아해요.

수진 ?? (당황해서 굳은 수진) 어??

수진이 반응할 새도 없이 고백하고 나서 헛구역질하는 시현, 식겁하는 뒤로 물러나는 수진

S#8 편의점, 낮

라면 먹은 흔적, 편의점 테이블에 얹드려 있는 시현,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진.

수진 (물을 건넌다) 괜찮아?

시현 아뇨..

수진 필름은 안끊겼어?

시현 아 그정도는 아니에요ㅋㅋ

수진 ..다 기억나?

시현 네 언니가 저 집 데려다 주고..

수진 (말 끊고) 그럼 너 어제 나한테 고백한 것도 기억나?

시현 .....네...?????????

순간 멈춘, 시현이 굳어버리자 수진이 되묻는다.

수진 시현아?

시현 (그제서야 렉이 풀리고) 아 제가 엄청 취하면 아무한테나 고백을

하고 다녀서.. 제 주사예요! 주사!

수진 (말이 끝나자마자) 나 좋아한지 1 년 됐다며? 계절학기도 나 따라서 들은거고.

시현 (망했다.는 표정과 제스처, 급격히 불안해한다.)

수진 너 나 좋아한다고 한 열 번은 말하던데? 난 좋아한다는 말을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ㅋㅋㅋ

시현 ...친구로라도 지내주면 안돼요?

수진 (걱정말라는 듯 웃으며) 친구로 만족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현의 손을 수진이 느리게 슬쩍 잡는다.

시현 네??? ... (진심인 수진을 보고 정색하고) 저요???????? ..진짜요?????  
왜요??????? (병 찌 모습)

시현 뒤로 편의점에 걸려있는 현수막 - '로또 명당' 혹은 로또 1 등 몇 억 당첨!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는게 보인다.

시현 언니 잠깐만요 저 뭐 좀 사올게요 잠깐만요!

후다닥 편의점 안으로 달려가는 시현, 어리둥절하며 그런 시현을 보고 귀엽다는 듯이 피식 웃는 수진.

S#9 카페 앞, 낮

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 아무도 없다가 수진과 시현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온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자 뽀뽀하는 시현, 인사하고 가려는데 시현 잡아당기더니 문 프레임 밖으로 끌고나가며 뽀뽀하는듯한 수진. 곧 시현은 헤벌쭙 웃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오고 수진과 헤어진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인과 하정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란 표정이다.

다인            뭐야??? 둘이 사겨???

하정            (입 벌리고 있다) ...갑자기??ㅋㅋㅋㅋ

다들 어이없으면서도 웃음을 못 감춘다.

다인            헐 와..

하정            와..개~쩨다..

시현            (끄덕, 비장하게 당연하다는 듯 로또를 착 꺼내 보이자 하정 엄지척, 다인 웃는다)  
아~~ 몰라 근데 사귀는거 들킬거 같은데..

하정            (별걸 다 걱정한다는 듯)  
야 나 씨씨하고 헤어졌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한국의 편견이 너희를 지켜줄거야~ ..학교에서 뽀뽀만 안하면..

다인            그래서 어떻게 된건데 자세히 얘기해봐 빨리

시현            아니 그계..